

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
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배포 : 2020. 07. 30.(목) • 사업화지원Hub실 이혜령 실장 / 성과확산실 김소연 실장 / 사업화지원Hub실 민성진 수석연구원 • ☎ 031-389-6321 / 6550 / 6357 • jeri@kaia.re.kr / sykim@kaia.re.kr / sfromw@kaia.re.kr 	
보도일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7월 31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즉시 보도 가능 	
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,

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으로 지정

- 업무협약(MOU) 체결로 국토교통분야 중소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위한
전문평가업무 시행 예정 -

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(원장 손봉수, 이하 국토교통진흥원)은 국토교통분야 기술보유 중소기업의 코스닥 등 기술특례상장*을 위한 전문평가업무 시행을 위해 7월30일(목) 한국거래소(이사장 정지원)와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* 기술특례상장 : 전문기관의 기술평가 및 상장심사를 통해 기술성이 인정된 기업에 대해 현재 이익 실현여부에 관계없이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

□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거래소는 국토교통진흥원에 기술기업의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국토교통진흥원 포함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* 2개사로부터 A등급 및 BB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중소·벤처기업은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자격을 갖추게 된다.

* 한국거래소 지정 전문평가기관 22개('20.7월말 기준) : 정부산하 연구·평가기관 16개(국토교통진흥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) 및 기술신용평가기관 6개(기술보증기금, NICE평가정보(주) 등)

- 국토교통진흥원은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차, 스마트물류, 프롭테크(Proptech) 등 유망기술을 갖춘 국토교통분야 중소·벤처기업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한편,
- 한국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, 정보, 노하우,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분야 중소·벤처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진흥원 손봉수 원장은 “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축적된 국토교통분야 기술이해도, 기술평가 등을 통해 쌓아온 전문성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, 우수한 기업들의 기술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 이라고 말했다.

□ 국토교통진흥원은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 수행을 위해 평가매뉴얼 구축 및 전문평가위원 Pool 정비 등 사전준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, '20년 10월부터 전문평가 업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.

※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www.kaia.re.kr)

국토교통부 산하 유일한 국가 R&D사업 전문기관으로서 5,247억 원('20년 기준)의 R&D 예산을 집행관리하고 있으며, 주요 사업으로는 건설기술연구사업, 플랜트연구사업, 도시건축연구사업, 교통물류연구사업, 철도기술연구사업,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등과 건설·교통 신기술 인증사업이 있다.